

# 통합치료연구

제5권 제1호

한국통합치료학회

##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부 회 장 : 홍혜영(명지대학교)

총 무 : 곽은미(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 권수진(Maryville University)

윤 리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최광현(한세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송민애(연세대학교) 유경훈(송실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최예린(명지대학교) 조민자(고려대학교)

간 사 : 김혜정 이선진 남은아

감 사 : 김수지(이화여자대학교) 김은연(명지대학교)

## 〈차 례〉

-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정서지  
능의 매개효과  
양지수·홍혜영 ..... 5
  -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최재혁·홍혜영 ..... 31
  -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함혜경 ..... 57
- 
-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87
  - <별첨 2> 투고규정 / 90
  -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91
  -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98



##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양지수·홍혜영\*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 정서지능의 연관성에 대해 검토한 후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평가 하였다. 연구의 가설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지방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 401명을 자료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친구가 중요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 관련 연구가 미흡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정서지능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학생의 진로상담 장면에서 정서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어 :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 교신저자: 홍혜영,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E-mail: hyhong@mj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신의 삶을 주체해 나가는 존재로 삶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진로지도 부재와 사회의 고학력화 추세로 자신의 적성과 장래희망보다는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입학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이렇게 보면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전공 선택과 관련되고 나아가 직업을 정하고 개인의 미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황혜리, 류수정, 2009).

Super(1951)의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로서 그 중 취업에 필요한 훈련, 교육 등을 받고 직업 선택에서 보다 더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며 자아개념이 직업적 자아개념으로 전환하는 전환기에 해당한다(이현림, 김봉환, 김병숙, 최용용, 2003). 그러므로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며 진로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은 대학생의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이다(진현정, 2011).

Hackett와 Betz(1981)는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rer self-efficacy)으로 개념화 하였다. 진로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개인은 진로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과업이나 행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진로결정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결정에 필요한 과제와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적은 학생일수록 그러한 과제에 참가하는데 소극적이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성공적인 과제 수행 경험은 그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다(이태정, 2003).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내적 변인인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자아개념, 애착 등과 변인들의 심리학적 구조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왔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외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발견하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밝혀지고

있는데(Du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Levitt, Guacci-Franco, & Levitt, 1994),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하여 있을 때,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Betz, 1989).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응을 예언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며, 개인이 받는 지지가 아닌 지각된 지지가 대처의 효능성, 적응적 결과 및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대한 예언적 역할을 한다(Sarason, Pierce, Shearin, Sarason & Waltz, 1991; 조명실, 2007, 재인용).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대상인 친구, 애인, 부모, 교사의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조명실, 2007; 한수현, 2003; 박현일, 김기원, 2001).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목표를 선택하고 정보수집하며, 미래계획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이경선, 2009).

사회적으로 제공받는 지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누구에게서 제공된 것이냐 하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안녕과 적응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해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지지원이 지지의 절대적인 양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Troits, 1982). 그리고 개인이 제공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지지 자원을 파악하여 그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실제로 제공 받는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제공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이현진, 2009).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지지 제공자에 대한 구분 없이 사회적 지지만을 보거나, 사회적 지지를 제공자를 구분하여 영향력을 보는데 그쳐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인 부, 모, 친구가 구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Kidd(2004)는 진로발달과 진로 관리는 합리적이고 계획된 과정으로 보았고 진로 연구에서 정서적인 요인이 간과되어 진로 전환이나 진로 선택 및 진로탐색 등과 관련된 진로문제에서 정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실직, 직업 탐색, 구직을 위한 면

접, 새로운 직업의 시작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감정이 발생하면서 정서가 진로 상담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다(Tracy, 2007).

최근에는 정서지능이 진로선택과 결정의 핵심요소이며, 정서가 직접적으로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구인임을 밝히는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박용두, 이기학, 2007). Mayer와 Salovey(1997)는 정서지능의 하위유형인 정서활용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서활용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일이나 인간관계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빈번하게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도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기조절력과 적응력이 뛰어나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사람은 원활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박지민, 2000).

Caruso와 Wolfe(2001)는 정서가 진로 발달, 선택 그리고 일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과되어 오던 정서의 역할에 대한 탐색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정서지능은 정서와 느낌을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인식된 정서를 사고하고 이해하는 과정,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관계되는 개념이다(문용린, 1996). 정서지능과 관련된 이론들(Bar-On, 1997; Mayer & Salovey, 1997)에 따르면 정서는 인지적인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판단을 내리게 도와준다. Young, Valach와 Collin(1996)은 진로 구조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정서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서는 행동을 동기화시키고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둘째, 정서는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한다. 셋째, 정서는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주며 진로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진로 발달의 정서적 측면과 정서 처리 과정의 중요성은 진로 상담의 실제와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Brown, George - Curran, & Smith, 2003).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알고 결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을 밝혀 진로 상담에 이용한다면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생기는 혼란과 불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박용두, 이기학, 2007; 유나현, 이기학, 2005; 이광희,



2008),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조절, 활용하는 능력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유나현, 2005).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각각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소수에 불과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유의한 영향력을 밝혀냄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성재숙, 2004; 김중렬, 2009). 사회적 지지는 학생을 둘러싼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변인이지만 정서지능의 경우에는 개인 내적 변인이다(이소미, 2011).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내적 변인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이 함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지지를 통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는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여주고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여 진로에 대한 준비도를 높여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송현심, 2010). 그러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다룬 연구는 부족하고, 사회적 지지 제공자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변인인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서지능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고, 성별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인지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접근과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정서지능이 매개효과가 확인될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 내적 변인인 정서지능을 향상시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 연구문제2.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정서지능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 연구문제4. 연구모형에서 남, 여 간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인가?

## Ⅱ. 연구문제

### 1.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지역 4년제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누락된 문항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49부를 제외하고 총 401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 중 남자가 202명(50.4%), 여자가 199명(49.6%)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82명(20.4%), 2학년 80명(20.2%), 3학년 117명(29.2%), 4학년 122명(30.4%)으로 구성되었다.

### 2. 연구도구

#### 가. 사회적 지지 척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근거로 윤혜정(1993)이 부분 수정한 척도를 이현진(2009)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문항은 총25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를 어머니, 아버지, 가장 가깝게 느끼는 친구로 구분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가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현진(2009)이 보고 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부지지 .96, 모지지 .96, 친구 지지 .9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 전체 신뢰도는 .98이며, 어머니 지지 .96, 아버지 지지 .96, 친구 지지 .95로 나타났다.

####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타당화 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의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9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민정(2006)이 Likert 5점 척도로 변환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김민정(2006)보고한 신뢰도는 정보수집 .63, 목표설정 .81, 진로계획 .78, 문제해결 .75, 자기평가 .81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93이며, 하위요인인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신뢰도는 .73, .72, .81, .69, .77로 나타났다.

#### 다. 정서지능 척도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몇몇 척도(Bar-on, 1997; Mayer, Salovey, Caruso, & Sitarenio, 2003; Sala, 2002; Tapia, 2001) 중에 널리 쓰이고 연구되는 Schutte 등(1998)이 제작한 정서지능 척도(th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유나현(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alovey와 Mayer의 정서지능 모델에 기반을 둔 33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7로 보고되었고 2주 후의 재검사 신뢰도는 .78이었다(Schutte 등, 1998). 초기에 단일요인을 가정했던 것과 달리 Petrides와 Furnham(2002)의 요인 분석에 따르면 33문항은 네 개의 하위요인 즉, 정서평가, 기분조절, 사회적 기술, 그리고 정서의 활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하위 척도들의

신뢰도는 .81, .72, .72, .62 순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5, 28, 33번 문항은 역 채점하여 다른 문항들과 합산하여 높은 점수는 높은 정서지능을 의미한다. 유나현(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9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지능 신뢰도는 .88이었으며, 하위요인인 기분조절, 정서평가, 사회적 기술, 정서의 활용의 신뢰도는 .70, .64, .70, .74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20.0을 사용한다.

첫째, 전반적인 기술 통계량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내 적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통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 검증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 (SEM :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여섯째,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매개효과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일곱째, 남녀 간의 집단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집단 차이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척도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인이 성별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남녀 간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도 함께 제시 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은 다변량 정상성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

도 함께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 제공자 중 아버지 지지( $t=2.18, p<.05$ )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t=2.90, p<.01$ )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별 하위요인 중에서는 아버지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지지( $t=2.28, p<.05$ ), 물질지지( $t=2.32, p<.05$ )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 $t=2.88, p<.01$ ), 진로계획( $t=2.55, p<.05$ ), 문제해결( $t=1.97, p<.05$ ), 자기평가( $t=4.54, p<.001$ )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아 성차가 있었다.

왜도는 자료의 좌우 비대칭성의 정도와 방향을, 첨도는 분포 중앙에 얼마나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왜도는 2, 첨도는 7이하이면 정상성 가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SPSS 프로그램에서 첨도 값은 미리 3을 뺀 값을 제시하므로 첨도의 경우 나온 수치에 3을 더하여 7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West, Finch, & Curren, 1995). 본 연구에서 왜도와 첨도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가 조건을 충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한 최대 우도법의 사용이 적합하였다. 이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 2.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28$ ), 정서지능( $r=.34$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인 어머니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26$ ), 정서지능( $r=.22$ ), 아버지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19$ ), 정서지능( $r=.28$ ), 친구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32$ ), 정서지능( $r=.41$ )과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하위 유형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지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66$ )로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모든 하위 유형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연구변인의 기술 통계치와 *t*검증 결과

변인	전체(N=401)				남자(N=202)		여자(N=199)		<i>t</i>
	M	SD	왜도	첨도	M	SD	M	SD	
사회적 지지	103.20	14.41	-0.96	4.21	104.03	14.21	102.36	14.59	1.16
모 지지	106.60	16.29	-1.38	5.77	107.43	15.61	105.73	16.95	1.04
모 정서지지	29.88	5.20	-1.33	4.94	30.02	5.02	29.73	5.38	0.55
모 물질지지	26.91	3.98	-1.71	7.00	27.25	3.91	26.56	4.03	1.73
모 정보지지	24.47	4.80	-0.88	4.59	24.57	4.63	24.37	4.97	0.42
모 평가지지	25.33	4.24	-1.24	3.9	25.59	4.08	25.07	4.38	1.23
부 지지	102.50	19.53	-1.31	4.99	104.60	15.61	100.36	21.09	2.18*
부 정서지지	27.96	6.28	-1.03	4.76	28.66	5.69	27.24	6.77	2.28*
부 물질지지	26.29	4.80	-1.83	6.72	26.84	4.43	25.73	5.10	2.32*
부 정보지지	24.04	5.26	-0.95	3.73	24.45	4.80	23.62	5.68	1.58
부 평가지지	24.22	5.08	-1.08	3.97	24.65	4.72	23.78	5.40	1.72
친구 지지	100.52	14.86	-0.76	4.78	100.06	15.36	100.98	14.35	-0.62
친구 정서지지	29.20	4.59	-1.01	4.50	28.92	4.60	29.49	4.57	-1.26
친구 물질지지	23.02	4.53	-0.63	3.12	22.82	4.84	23.23	4.20	-0.91
친구 정보지지	23.62	4.10	-0.45	-3.03	3.80	4.28	23.44	3.92	0.88
친구 평가지지	24.68	3.81	-0.82	4.01	124.53	3.84	24.82	3.78	-0.7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88.28	14.85	-0.04	-3.41	90.40	14.08	86.14	15.32	2.90**
정보수집	16.94	3.44	0.01	-3.17	17.01	3.52	16.86	3.37	0.41
목표설정	18.39	3.40	-0.05	-3.53	18.87	3.18	17.90	3.54	2.88**
진로계획	17.33	3.79	-0.09	-3.55	17.80	3.80	16.84	3.73	2.55*
문제해결	17.08	3.46	0.07	-3.45	17.42	3.48	16.74	3.41	1.97*
자기평가	18.55	3.42	-0.16	-3.63	19.30	3.11	17.78	3.55	4.54***
정서지능	122.46	13.47	0.16	-3.11	123.02	14.17	121.90	12.73	0.83
정서평가	32.63	4.10	0.16	3.02	32.87	4.19	32.39	4.01	-0.23
기분조절	33.21	4.48	-0.04	3.25	33.72	4.77	32.68	4.10	1.27
사회적 기술	41.20	5.15	-0.1	-3.20	40.92	5.35	41.49	4.94	-1.60
정서의 활용	15.42	2.58	-0.14	-3.14	15.51	2.58	15.33	2.57	0.67

\*  $p < .05$ , \*\*  $p < .01$ , \*\*\*  $p < .001$

〈가로표〉

〈표 2〉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간 상관계수

**A. 사회적 지지**, 1.어머니 지지(1-1.모 정서지지, 1-2.모 물질지지, 1-3.모 정보지지, 1-4.모 평가지지) 2.아버지 지지(2-1.부 정서지지, 2-2.부 물질지지, 2-3.부 정보지지, 2-4.부 평가지지), 3.친구 지지(3-1.친구 정서지지, 3-2.친구 물질지지, 3-3.친구 정보지지, 3-4.친구 평가지지), **B.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정보수집, 5.목표설정, 6.진로계획, 7.문제해결, 8.자기평가, **C.정서지능**, 9.정서평가, 10.기분조절, 11.사회적 기술, 12. 정보의 활용

###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 가.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에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X^2$ 값은 전반적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X^2$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성과 영가설의 엄격성 등의 이유로 모형적합에 있어 완전히 의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김대업, 2008).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과 모형의 간명성 등을 고려하여 TLI, CFI, RMSEA를 이용하였다. TLI, CFI, RMSEA는 다른 지수에 비해 바람직한 적합도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홍세희, 2001). 어머니 지지, 아버지 지지, 친구 지지,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854, CFI=.875, RMSEA=.111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 지수가 적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가장 높은 수정지수를 갖는 변수들 간에 공분산이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모형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을 적용하였다(이학식, 임지훈, 2007). 수정지수를 활용하여 가장 높은 수정지수를 갖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 물질지지와 아버지 물질지지, 어머니 정보지지와 아버지 정보지지, 어머니 평가지지와 아버지 평가지지 간에 높은 수정지수가 발견되어 각각의 관계에 대해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TLI, CFI가 .90을 넘었고, RMSEA가 .08을 넘지 않아 괜찮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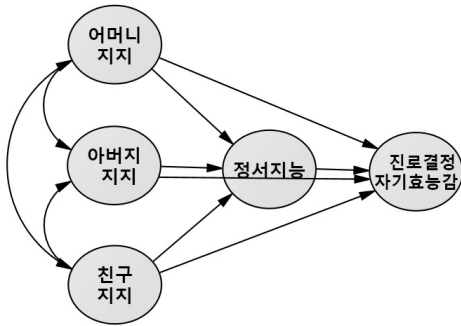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X^2$	$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측정모형	536.94***	176	.94	.95	.072(.065~.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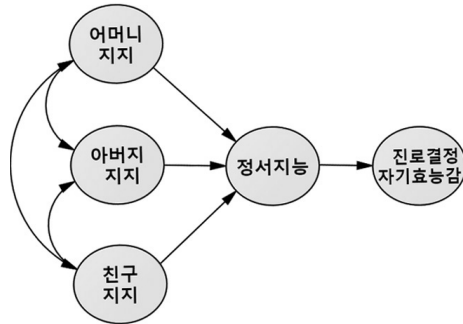
\*\*\* $p < .001$

### 나. 구조모형 검증

사회적 지지가 정서지능을 매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의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을 살펴 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정서지능을 매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부분매개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그 효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분 매개 모형(그림1)과 완전 매개 모형(그림2)을 경쟁 모형으로 비교 하였다. 부분 매개 모형은 그림 1에 제시 되어 있고 완전 매개 모형은 그림 2에 제시 되어 있다.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의  $X^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을 비교하는 경우, 연구모형이 경쟁모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형의 비교는  $X^2$  차이 검증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이 경로가 세 개 더 있으므로  $X^2$  값이 작고  $df$ 는 3이 적게 된다.  $X^2$  값은 적을수록 적합도는 높고  $df$ 는 큰 것이 간결성의 가치(parsimonious value)에서 바람직하다(이학식, 임지훈, 2007). 두 모형을 비교해보면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개 모형에 비해  $\Delta df$  값이 3,  $\Delta X^2$  값이 0.991이다. 유의수준 .05, 자유도 3일 때 임계치는 7.81 이므로, 완전매개 모형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B)와  $t$ 값(C.R)을 통해 매개모형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표준화된 계수( $\beta$ )를 통하여 모형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에서 설정한 경로에서 친구 지지에서 정서지능으로 가는 경로와 정서지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만이 유의하였다. 친구 지지에서 정서지능으로 가는 경로( $\beta=.433, p<.001$ )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은 친구 지지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서지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 $\beta=.734, p<.001$ )에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표 4〉 연구모형, 경쟁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chi^2$	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연구모형(부분매개)	536.94***	176	.94	.95	.072(.065~.079)
경쟁모형(완전매개)	537.93***	179	.94	.95	.071(.064~.078)

$p < .001$ \*\*\*

〈표 5〉 최종모형(경쟁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경로	B	$\beta$	SE	t
어머니 지지 → 정서지능	-.03	.06	.05	.67
아버지 지지 → 정서지능	-.02	-.05	.04	-.59
친구 지지 → 정서지능	.27	.43	.05	6.01***
정서지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05	.73	.10	10.86***

\*\* $p < .01$ , \*\*\* $p < .001$

#### 다.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경로와 매개효과가 유의미해야 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홍세희, 2001; 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hrout와 Bolger(2002)의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였다.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원자료(N=401)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부트스트랩 자료 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인 어머니 지지, 아버지 지지, 친구 지지와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접

효과의 크기가 95%인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간접효과(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은 어머니 지지, 아버지 지지, 친구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는 부분지지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중에서 친구 지지에서 정서지능으로 가는 경로와 정서지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친구 지지에서 정서지능을 거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가 95% 수준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90 - .433). 따라서 친구 지지에서 정서지능을 거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p<.01$ ).

<표 6> 최종모형(경쟁모형)의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어머니 지지 → 정서지능	.055	-	.055
아버지 지지 → 정서지능	-.046	-	-.046
친구 지지 → 정서지능	.433***	-	.433***
정서지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734***	-	.734***
정서지능 어머니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040 (-.103 - .151)	.040
정서지능 아버지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034 (-.153 - .096)	-.034
정서지능 친구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318** (.190 - .433)	.318**

\*\* $p<.01$ , \*\*\* $p<.001$

### 라. 다집단 분석 검증

최종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을 나누어 다집단 동시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집단 모두에서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형태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남녀 두 집단 모두에서 CFI와 TLI의 값이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RMSEA도 .10이하의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남녀집단 간 모수 추정치를 보면 두 집단 모두 ‘모지지→정서지능’, ‘부지지→정서지능’의 경로는 유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지지→정서지능’, ‘정서지능→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형태동일성이 성립된 바, 두 집단 간 측정모형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에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형태 동일성이 검증된 두 집단을 합한 전체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고, 각 집단의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측정모형으로 하여 두 모형 간의  $X^2$  값의 차이와 적합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모형을 비교해보면 기저모형이 완전측정동일성모형에 비해 보면  $\Delta X^2=20.616$ ,  $\Delta df=14$ 이다. 유의수준 .05, 자유도 14일 때 임계치가 23.6이므로, 두 집단 의 측정요인계수는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측정동일성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완전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어 집단 별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들 간 경로계수 차이가 가장 적은 경로부터 순차적으로 동일화 제약을 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홍세희, 2010). 제약을 가한 경로는 ‘부지지→정서지능’, ‘모지지→정서지능’, ‘친구 지지→정서지능’, ‘정서지능→진로결정 자기효능감’순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구조 동일성 모형이 모두 채택 되어, 모든 경로에서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집단별 적합도 지수 (형태동일성)

	$X^2$	$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남자	342.11***	179	.95	.96	.067(.056~.078)
여자	430.11***	179	.92	.93	.084(.074~.094)

\*\*\*  $p < .001$

<표 8> 집단별 경로 추정치

변인 간 경로	남		여	
	B	$\beta$	B	$\beta$
어머니 지지 → 정서지능	.01	.01	.04	.08
아버지 지지 → 정서지능	-.01	-.02	-.03	-.08
친구 지지 → 정서지능	.30***	.44***	.25***	.44***
정서지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88***	.74***	1.28***	.74***

\*\*\*  $p < .001$

〈표 9〉 측정동일성 모형 적합도

	$X^2$	$df$	$\Delta X^2$	$\Delta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기저모형	988.422***	364			.90	.91	.066(.061~.070)
완전측정 동일성모형	1009.038***	378	20.616	14	.90	.91	.065(.060~.070)

\*\*\* $p < .001$

〈표 10〉 구조동일성 모형 적합도

	순차적 동일화 제약 경로	$X^2$	$df$	$\Delta X^2$	$\Delta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판 정
완전 측정 동일성 모형	-	1009.04***	378	-	-	.90	.91	.065 (.060~.070)	
구조 동일성 모형(1)	부지지→정서지능	1009.11***	379	0.068	1	.90	.91	.065 (.060~.069)	채 택
구조 동일성 모형(2)	부지지→정서지능 모지지→정서지능	1009.15***	380	0.046	1	.90	.91	.064 (.060~.069)	채 택
구조 동일성 모형(3)	부지지→정서지능 모지지→정서지능 친구 지지→정서지능	1009.18***	381	0.026	1	.90	.91	.064 (.059~.069)	채 택
구조 동일성 모형(4)	부지지→정서지능 모지지→정서지능 친구 지지→정서지능 정서지능→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011.82***	382	2.641	1	.90	.91	.064 (.059~.069)	채 택

$p < .001$ \*\*\*

##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대

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각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에 따른 각각의 변인 간의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 제공자 중 아버지 지지에서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성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제공받는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Furman & Buhrmester, 1992; Hunter & Youniss, 1982)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없다는 한수현(200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지지를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 사회에서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처벌적이고 억압적으로 지각되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어머니만이 아니라 부모 공동의 관심사로 여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아버지가 동성으로서 아들의 학업, 직업, 경제생활, 성역할, 직업 등의 많은 영역에서 보다 쉽게 아들을 이해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남학생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신종임, 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도 성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하위요인인 정보 수집을 제외한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에서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개인적인 특성(성별, 학년, 전공계열)을 살펴본 기본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보고들이 비교적 많았는데(손은령, 2001; 조현주, 2006),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별, 학년, 학과만족 등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상황(context)에 따라서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직업적 면에서도 발달 유형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기학, 이학주, 2000; 이인숙, 1998; 이현주, 2000; 조아미, 2000; Tippins, 1991).

둘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들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송현심, 홍혜영, 2010, 이경선, 2009)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적 상관을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성재숙, 2004, 김종렬, 2008; 이주현, 2010; 이소미, 2011) 사회적 지지 혹은 부모지지와 정서지능이 정적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학생이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박성실, 2010; 이광희, 2008; 박용두, 이기학, 이중희, 2006; 유나현, 2004; Kidd, 1998; Guay, et al, 2003; Young & Colin, 1996)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최종모형에서 어머니 지지, 아버지 지지, 친구 지지 중 친구 지지만이 정서지능을 거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 모형으로 검증 되었다. 연구 모형 내 효과성을 분해한 결과 정서지능이 친구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이 지각하는 친구 지지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 되었고,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본 선행 연구(박용두, 이기학, 2007; 이중희, 2006; 유나현, 2004; Kidd, 1998; Guay et al., 2003; Young & Collin, 1996)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학생이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고, 애착과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광희, 2008)에서는 정서지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했고, 경로계수는 .5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73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며, 정서지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지능의 향상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증대 뿐 아니라 적응적인 과정을 통한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학생이 진로와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느끼는 정서를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박성실, 2011).

한편 의미 있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의 관계를 본 선행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 국한되어 있었고, 대부분 상관이나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의 관련성은 밝혔으나 사회적 지지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경로나 기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에 대해 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애착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어 대학생이 의미 있게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 제공자 중 친구지지만이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친구 지지에서 정서지능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43으로 친구 지지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지지와 아버지 지지는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부모 지지 보다는 친구의 지지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또래간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Young, 1999), 나이가 들수록 부모 보다는 형제나 친구 가 같은 동년배의 지각이 높다는 결과(이영자, 1995)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의미 있는 대상으로 부터의 지지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정서지능을 향상시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집단 상담이나, 진로 상담 장면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t$  검증에서 아버지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지만, 다집단 분석 결과, 모든 경로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로에서 성별의 차이를 연구한(진현정 2010; 이광희, 2008) 결과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집단 분석 결과 모든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 않아, 경로에 따라 성차가 고려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 제공자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를 파악하고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정서지능을 증진시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의 관계에 대해 대상을 확장할 수 있었다. 친구 지지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의미 있는 대상과 정서지능의 역할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대학생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 제공자로 중요한 타인인 친구 지지와 정서지능,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청년 후기의 대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적인 영향력이 검증 되었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위해 정서지능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참고문헌

- 김대업(2008). AMOS A toZ 논문작성 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서울: 학현사.
- 김민정(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 13-25.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중렬(2009).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정서지능,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6). 정서지능 연구의 성차의 전망. 교육학 연구, 98-120.
- 박성실(2012).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두, 이기학(2007). 정서지능, 지각된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41-1056.
- 박지민(2000).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및 감성지능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일, 김기원 (2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계명연구논총. 19, 7-23.
- 성재숙(2004).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서지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심, 홍혜영(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1(3), 1325-1350.
- 신종임(2010).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나현, 이기학(2005).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451-466.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 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선(2009).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희(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

- 계.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소미(2011). 초등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1995).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숙(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차가 성취지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현(2010). 내담아동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모-자녀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부모상담의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중희(2006).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정(2003). 몰입 경험이 진로 태도 성숙 및 진로 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법문사.
- 이학주, 이기학(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 - 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1), 127-136.
- 이현림, 김봉완, 김병숙, 최응용(2003). 현대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이현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 연구, 235-257.
- 조명실(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효능감. 교육학연구, 38(4), 43-62.
- 조현주(2006). 인지 양식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 장애와의 관계 연구. 진로교육 연구, 19(1), 93-110
- 진현정(2011).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수현(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

- 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 학회 3월 워크샵 자료집
- 홍세희(2010). 구조방정식 모형: 중급.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8 자료집. 서울: S & M 리서치 그룹.
- 황혜리, 류수정(200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 진로 태도성숙 및 영적안녕과의 관계. 기독교상담학회지, 18, 355-380.
- Bar-On, R.(1997). The Emotional intelligence inventory(EQ-1): Technical Manual. Toronto, Canada: Multi - Health System.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tz, N. E.(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17, 136-144.
- Brown, C. George - Curran, R.& Smith, M. L.(2003).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career commit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379-392.
- Caruso, D. R. & Wolfe, C. J.(2001).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A Scientific inquiry.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 DuBois, D.L., Felner, R.D., Mearns H. ,& Krier, M.(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11-522.
- Furman, W. & Burmaster, D.(1992).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Guay, F., Senecal, Gauthier, & Fernet, C.(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A self-determin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121-139.
- Hackett,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Kidd, J. M.(1998). Emotion: An absent presence in career theory. *Journal of*

- Vocational Behavior*, 52(3), 275-288.
- Kidd, J. M.(2004) Emotion in career contexts: Challenges for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 441-454.
- Levitt, M.J., Guacci - Franco, N., & Levitt, J. L.(1994).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 multi-cultural stud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207-222.
- Mayer, J. D & Salovey, P.(1997). What is Emotion: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
- Salovey, P., Mayer, J. D, Caruso, D. R., & Lopes, P.(2003).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as a set of abilities with the MSCEIT. In S. J. Lopez, C. R. Snyder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assessment.
-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uper, D. E.(1951).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ary a self-concept. *Occupations*, 30, 88-92.
- Petrides, K. V., & Furnham, A.(2002). On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313-320.
- Tippins, D. J.(1991). The relationship of science self-efficacy and gender to 9th grade students' intentions to enroll in elective science cours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April
- Tracy, L.(2007). Family of origin and career counseling: An Interview with Robert Choep. *The Family Journal*, 15(2), 152-158.
- Young, R. A., Valach, L., & Collin, A.(1996). A contextual explanation of career.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Young, R. A. & Valach, L.(1996). Interpretation and action in career counseling. In M. L. Savickas & W. B. Walsh (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alo Alto, CA: Davies-Black.

〈Abstract〉

**The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Yang, Ji-Su · Hong, Hye-Young<sup>+</sup>

Gumchon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for Youth, Myou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fter reviewing relevant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a possible mediator, the dysfunctional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hypothesized and mediational model was evalua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se hypotheses, 401 four-year University students were recruited, who lived in souther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full mediational model was best fitted by the data.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friend's support of social support's subvariable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would be the most significant supporting factor. In other words, friends performed an essential role as a supporter and not only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emotion intellig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ut also implications for the availability of emotional approach in the career counselling for university students were confirmed.

Key words :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통합치료연구 제5권 1호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2013, Vol. 5 No. 1, 31-56

##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최재혁·홍혜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중학생 576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습관여, 성취목표, 진로포부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의 학습관여, 성취목표,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의 하위변인 중 긍정적 학습관여는 성취목표전체와 이에 하위변인인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종속변인인 진로포부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수행회피목표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부모의 학습관여의 하위 변인 중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성취목표전체,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진로포부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성취목표전체,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를 부분매개로 하여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수행회피목표를 완전매개로 하여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학습관여가 성취목표를 매개로 하여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밝혀 교육상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핵심어 : 부모의 학습관여, 진로포부, 성취목표

\* 교신저자: 홍혜영,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E-mail: hyhong@mj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을 시험하고 탐색한다(양난미, 2008; 이광자, 2005; 홍영란, 1983; Bandura, 1989; Bandura. et al., 2001; Hackett & Betz, 1981; Young & Friesen, 1992). 이 시기에 중학생들에게 중요한 진로과업 중에 하나는 진로포부를 갖는 일이다. 진로포부란 진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개인이 선택한 진로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가 하는 것으로(신원, 2007), 자신에게 앞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 지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또한 진로포부는 외적강화가 없을 때에도 장기간 행동을 지속하게 하여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학교 학습경험을 의미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Wang & Staver, 2001).

청소년의 진로결정에는 개인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적성, 가치관, 흥미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변인들이 있으며, 주요 맥락 변인 중에 하나가 ‘부모’이다(선혜연, 김계현, 2008). 진로선택 및 진로 발달에 관한 주요 이론들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부모가 청소년의 진로선택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한국청소년상담원·청소년문제토론포럼, 2003).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진로포부를 결정하는 강력한 변인이지만(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단 기간 내에 변화하기 어려운 변인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변인과는 달리 부모의 학습관여 변인은 부모의 노력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박외자, 2010), 자녀들의 바람직한 행위를 촉진하여 그에 따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효과적으로 자녀교육에 관여했을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진로포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김종덕, 2001). 즉,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녀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습관여 태도는 성



장기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정정애, 2008).

한편, 성취목표는 학습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동기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습자들이 어떤 유형의 목표지향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사용하는 학습전략과 동기적인 변인이 달라지며, 이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성소연, 2007). 성취목표는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인지적 특성과 감정의 방식을 나타내는 정의적 특성, 그리고 행동방식을 나타내는 심리·운동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써 학습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가, 왜 학습하려고 하며 그 결과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는가를 의미한다(Elliot, McGregor & Gable, 1999).

최근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학습관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진로포부 수준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실질적인 지원과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자신의 학업성취, 사교육비, 어머니의 지원 등이 교육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경근, 전하람(2006)의 연구나, 이광자(2004)의 부모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한 신향숙과 장윤옥(2001)의 연구 등이 이를 지지해 주고 있다.

박미연(2011)은 부모지지,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효능감이 고등학생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성취목표와 진로포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최현정(2006)은 성취목표 중 숙달 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가 진로포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성취목표와 진로포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진로포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목표를 설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취목표가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부모의 학습관여, 성취목표, 진로포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학습관여와 성취목표는 진로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할 것인가?

## Ⅱ. 이론적 배경

### 1. 진로포부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란 진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개인이 선택한 진로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가를 의미한다(신원, 2007; O'Brien et al., 1996). 즉, 현재 진로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기대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 지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양난미, 2008; 홍영란, 1983; Bandura, 1989; Bandura, 2001; Young & Richard, 1992). Trice와 King(1991)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포부는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포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장래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의 진로를 명확하게 하며 진로발달과 직업성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O'Brien, 1996), 진로발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된다(장경아, 2011). O'Brien과 Fassinger(1993)에 의해 소개된 진로포부는 개인이 선택한 한 직업 내에서 리더직과 같은 보다 높은 직책, 직위를 열망하는 정도를 개념화한 것이다. 즉, 한 직업 내에서 개인이 성취하고 싶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정원식(1986) 등은 학습자가 어떤 특수한 학습과제에 당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즉 구체적 과제에서의 목표수준을 포부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에 비추어 볼 때, 진로포부수준은 각 개인이 개인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당면하는 일에 대해 예상하고, 희망하는 목표, 또는 성취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박외자, 2010).

본 연구에서의 진로포부는 개인이 선택한 한 직업 내에서의 리더직과 같은 보다 높은 직책·직위를 열망하는 정도를 말한다.

### 2. 부모의 학습 관여

부모는 중요한 존재로써, 자녀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자녀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성격형성에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현숙, 조한익, 2004).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자녀가 유아일 때 부모는 주로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게 되나 학령기

가 되면서부터는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의 학업문제로 옮겨가게 된다(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자녀의 학업과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조한익, 2011). 임은미(1998)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행동이 사춘기 이후 자녀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자율성 증진행동이나 학업정보 제공행동을 통합하면서 ‘부모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김종덕(2001)은 이를 자율성을 증진하는 네 가지 행동개념과 학업정보제공 등을 통합하여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학습관여 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 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여’는 자녀가 학습의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모는 자녀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부모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둘째, ‘적절한 규칙의 민주적 제공’은 부모가 자녀의 공부에 대한 여러 규칙을 제시할 때,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나눔으로써 자녀가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셋째, ‘학업 과정에 대한 문제해결적 검토’는 자녀의 학업성취 결과에 따라 자녀를 평가하지 않고, 학업 목표를 설정하는데 자녀를 직접 참여하게 하여,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바람직한 공부행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넷째, ‘학업적 진보격려’는 자녀에게 자기 유능감을 심어주기 위해 남들과 성과를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고유의 맥락에서 검토하여 주는 것으로, 상대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긍정적인 강화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학업적 정보제공’은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학습방법을 조사하고 수집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최상의 정보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자세로 정보를 안내하며 자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백미선, 2012; 이동훈, 2010). 한편, 부모의 학습관여로서 부정적인 관여 요인인 부모의 압박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학습에 대한 관심, 요구, 기대 수준 등의 정도를 말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교육적 관심이나 압력 수준을 뜻한다(박수자, 1996). 부모의 압박 요인으로는 성적이나 석차, 과제 확인, 시험 준비 등 자녀 교육에서 부모가 갖게 되는 기대심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형태로는 학업정보제공·조언과 자녀의 학습방식존중으로 부정적 학습관여 형태는 학업성과압력으로 분류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를 말한다(김연수, 2008).

### 3. 성취목표

성취목표(Achievement Goal)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유나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Maehr, 1989), 한 개인에게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Ames, 1992), 과업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유능감을 보여주거나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정의된다(Elliot & Church, 1997). 이러한 성취목표의 추구는,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경험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이종욱, 2007). 일반적으로 성취목표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제시하는데, 한 가지는 자신의 현재 수행수준이 과거 수준에 비하여 향상되고 능력이 개발되었는가를 절대적, 개인 내적 기준에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숙달목표(mastery goal)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수행을 타인과 비교하는 규범적 기준에서의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수행목표(performance goal)이다(최현정, 2006).

한편, Elliot(1997)는 성취목표를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로 구분하는 것이 수행목표를 접근 측면에서만 초점을 둔 것을 지적하고, 수행목표를 타인보다 우수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접근목표(performance-approach goal)’와 열등한 수행을 회피하려는 ‘수행회피목표(performance-avoidance goal)’로 구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이동훈, 2010). 숙달목표를 가진 학습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지향하고 과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능력수준을 향상시키고, 과제에 대한 숙달을 달성하려고 하며(Nicholls et al., 1989), 적절한 수준의 도전을 제공하는 과제를 선호하고, 모험을 추구하며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한다(Ames, 1988). 수행접근목표는 타인과의 상대적인 능력 획득에 중점을 두고 더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목표성향이다(Elliot, 1999). 수행접근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정서, 태도를 보이며, 학업과제에 가치를 두고, 과제에 대한 노력과 수행의 지속력을 보여준다(Elliot, McGregor & Gable, 1999). 한편 수행회피목표는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무능력 회피에 중점을 두는 회피 지향성의 일종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Elliot, 1997).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낮은 자신감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인다(Middleton & Midgley, 1997; Skaalvik, 1997).

본 연구에서의 성취목표는 Elliot(1997)가 세 가지로 분류한 성취목표 즉,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를 말한다.

#### 4. 부모의 학습관여, 진로포부와 성취목표의 관계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공평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부모지지를 인식하며, 이로써 안정된 진로선택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이광자, 2004; 이광자, 2005; 홍영란, 1983; Bandura, 1989; Bandura, 2001; Hackett, 1981; Young & Richard, 1992). 신향숙(2011)과 전하람(2006)도 부모의 수용적 지지가 청소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자녀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동일한 교육포부를 가진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비교한 전하람(2006)의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지원이 미흡할수록 교육적 포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인숙(2005)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업정보를 제공하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즉,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청소년 진로 관련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Gottfried(1994) 등은 부모행동과 자녀의 학습동기를 관련지은 연구들을 통해 자녀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하고 지적인 자극을 풍부하게 제공할 것, 그리고 자녀의 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세울 것 등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자녀의 발달과 성취의 효율적인 기제로 이해되어 왔으며(Fan & Chen, 2001; Jeynes, 2003; Lee & Bowen, 2006), 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행동이 자녀의 학업 동기에 영향을 주고(Henrich, 2001),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부모의 학습 지원행동이 자녀의 내재적인 학습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Gottfried, Fleming & Gottfried., 1994)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은 숙달목표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문은식, 김충희, 2003), 부모의 정서적·정보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이숙, 우희정, 1994),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가 높게 나타났다(천경희, 송영명, 2011). 따라서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성취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성취목표와 진로포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최현정(2006)은 성취목표 중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가 진로포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했으며, 박미연(2011)의 연구에서도 성취목표가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청소년과 시설청소년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장은혜(2009)는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희망과 성취목표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취목표와 진로포부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예측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 소재 중학교 5개교 2, 3학년 남, 여 중학생 59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문항 누락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총 572명(남 286명, 49.7%, 여 290명, 50.3%)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 본 결과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 $t=3.17, p<.01$ )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고, 진로포부( $t=-2.56, p<.05$ )에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성차가 있었다.

#### 2. 측정도구

##### 가. 부모의 학습관여검사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습관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종덕(2001)의 부모의 학습관여형태 척도를 김연수(2008)가 요인분석과정을 통해 10문항을 제외하고 3요인 20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요인 1은 ‘학습정보제공·조언’으로 명명된 9문항, 요인 2는 ‘학습성과압력’으로 명명된 7문항, 요인 3은 ‘자녀학습방식존중’으로 명명된 4문항 등 총 20문항이다. 요인 1과 요인 3은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형태, 요인 2는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형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71, 부모의 긍정적 관여는 .85,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84이었다.

##### 나. 성취목표

성취목표 검사는 학생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그것이 학습활동에 있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로 Elliot(1997)의 성취목표 검사 도구를 이선미(2000)가 번안한 것을 가인영(2002)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취목표 분류에 따라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숙달목표 .73, 수행접근목표 .82, 수행회피목표 .70, 성취목표전체는 .77이었다.

#### 다. 진로포부

진로 포부 척도는 O'Brien(1993)이 개발한 Career Aspiration Scale(CAS)을 최수욱(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적 문항 6문항과 부정문항(역채점문항) 4문항 총 1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포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는 .70이었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성취목표전체( $r=.15, p<.001$ )와 숙달목표( $r=.37, p<.001$ ), 수행접근목표( $r=.11, p<.01$ ), 진로포부( $r=.27, p<.001$ )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학습관여( $r=-.31, p<.001$ )와 수행회피목표( $r=-.14, p<.01$ )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성취목표전체( $r=.28, p<.001$ ), 수행접근목표( $r=.32, p<.001$ ), 수행회피목표( $r=.29, p<.001$ )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진로포부( $r=-.10, p<.05$ )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진로포부와 성취목표전체( $r=.26, p<.001$ ), 숙달목표( $r=.42, p<.001$ ), 수행접근목표( $r=.27, p<.001$ )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수행회피목표( $r=-.11, p<.01$ )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표 1〉 부모의 학습관여, 진로포부, 성취목표간 상관계수

	1-1	1-2	2	2-1	2-2	2-3	3
1-1. 긍정학습관여	-						
1-2. 부정학습관여	-.31***	-					
2. 성취목표(전체)	.15***	.28***	-				
2-1. 숙달목표	.37***	-.06	.58***	-			
2-2. 수행접근목표	.11**	.32***	.85***	.34***	-		
2-3. 수행회피목표	-.14**	.29***	.67***	-.02	.40***	-	
3. 진로포부	.27***	-.10*	.26***	.42***	.27***	-.11**	-
평균	3.28	2.59	3.29	3.63	3.18	3.05	3.55
표준편차	.68	.85	.51	.64	.80	.71	.53

\*\*\*  $p < .001$  \*\*  $p > .01$  \*  $p < .05$ 

## 2. 부모의 학습관여, 성취목표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 가. 부모의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학습관여는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F=21.95, p < .001$ )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대해 7.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진로포부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 나.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성취목표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숙달목표( $F=93.33, p < .001$ )에 대해 14%, 수행접근목표( $F=7.27, p < .01$ )에 대해 1.3%, 수행회피목표( $F=10.77, p < .01$ )에 대하여 1.8%, 성취목표전체( $F=13.30, p < .001$ )에 대해서 2.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 2〉 성취목표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SE	$t$	$R^2$	F
숙달목표		.35	.374	.04	9.67***	.140	93.33***
수행접근목표	긍정적	.13	.112	.05	2.70**	.013	7.27**
수행회피목표	학습관여	-.14	-.136	.04	-3.28**	.018	10.77**
성취목표전체		.11	.150	.03	3.65***	.023	13.30***

\*\*\*  $p < .001$  \*\*  $p < .01$



다.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가 성취목표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수행접근목표( $F=66.98, p<.001$ )에 대하여 10.4%, 수행회피목표 ( $F=51.23, p<.001$ )에 대하여 8.2%, 성취목표전체( $F=47.68, p<.001$ )에 대하여 7.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 3> 성취목표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SE	t	R <sup>2</sup>	F
숙달목표		-.05	-.06	.03	-1.53	.004	2.33
수행접근목표	부정적	.31	.32	.04	8.18***	.104	66.98***
수행회피목표	학습관여	.24	.29	.03	7.16***	.082	51.23***
성취목표전체		.17	.28	.02	6.91***	.077	47.68***

\*\*\*  $p<.001$

라. 성취목표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숙달목표( $F=123.80, p<.001$ )는 진로포부에 대해 17.7%의 설명력을, 수행접근목표 ( $F=44.73, p<.001$ )는 진로포부에 대해 7.2%, 수행회피목표( $F=7.24, p<.01$ )는 진로포부에 대해 1.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 4> 진로포부에 대한 성취목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SE	t	R <sup>2</sup>	F
진로포부	숙달목표	.35	.421	.03	11.13***	.177	123.80***
	수행접근목표	.18	.269	.03	6.69***	.072	44.73***
	수행회피목표	-.08	-.112	.03	-2.69**	.012	7.24**
	성취목표전체	.27	.264	.04	6.55***	.070	42.93***

\*\*\*  $p<.001$  \*\*  $p<.01$

3.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가.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성취목표 요인들 간의 매개효과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성취목표전체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beta=.150, p<.001$ ) 진

로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266, p<.001$ ),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성취목표전체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 $\beta=.232, p<.001$ ), 성취목표전체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관계를 부분매개(partial mediati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진로포부 변량의 7.1%를 설명하였으나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성취목표전체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진로포부 변량의 12.2%를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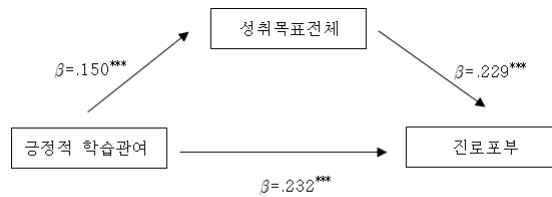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숙달목표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beta=.374, p<.001$ ) 진로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266, p<.001$ )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숙달목표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 $\beta=.126, p<.01$ ), 숙달목표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진로포부 변량의 7.1%를 설명하였으나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숙달목표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진로포부 변량의 19.1%를 설명하였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수행접근목표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beta=.112, p<.01$ ) 진로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266, p<.001$ )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수행접근목표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 $\beta=.239, p<.001$ ), 수행접근목표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진로포부 변량의 7.1%를 설명하였으나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수행접근목표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진로포부 변량의 12.9%를 설명하였다.

〈표 5〉 긍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전체 및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SE	<i>t</i>	$R^2$	<i>F</i>
1	성취목표전체	긍정적 학습관여	.11	.150	.03	-3.65***	.023	13.30***
2	진로포부	긍정적 학습관여	.21	.266	.03	6.61***	.071	43.76***
3	진로포부	긍정적 학습관여	.18	.232	.03	5.85***	.122	39.83***
		성취목표전체	.24	.229	.04	5.78***		
1	숙달목표	긍정적 학습관여	.35	.374	.04	9.67***	.140	93.33***
2	진로포부	긍정적 학습관여	.21	.266	.03	6.61***	.071	43.76***
3	진로포부	긍정적 학습관여	.10	.126	.03	3.12**	.191	67.70***
		숙달목표	.31	.374	.03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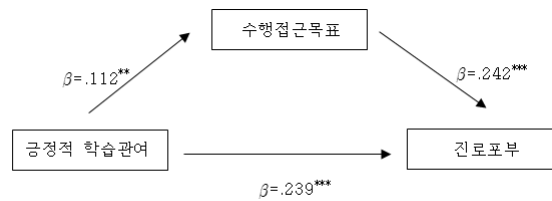
1	수행접근 목표	긍정적 학습관여	.13	.112	.05	2.70**	.013	7.27**
2	진로포부	긍정적 학습관여	.21	.266	.03	6.61***	.071	43.76***
3	진로포부	긍정적 학습관여	.19	.239	.03	6.09***		
		수행접근목표	.16	.242	.03	6.17***	.129	42.34***
1	수행회피 목표	긍정적 학습관여	-.14	-.136	.04	-3.28**	.018	10.77**
2	진로포부	긍정적 학습관여	.21	.266	.03	6.61***	.071	43.76***
3	진로포부	긍정적 학습관여	.20	.256	.03	6.31***	.077	23.78***
		수행회피목표	-.06	-.077	.03	-1.90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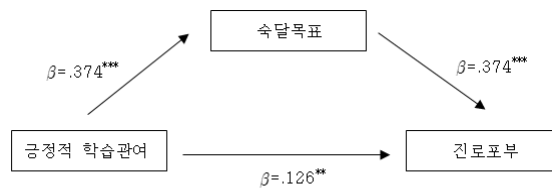
\*\*\*  $p < .001$

<그림 1> 긍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관계에서 성취목표전체의 매개효과



\*\*\*  $p < .001$  \*\*  $p < .01$

<그림 2> 긍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관계에서 수행접근목표의 매개효과



\*\*\*  $p < .001$  \*\*  $p < .01$

<그림 3> 긍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관계에서 숙달목표의 매개효과

### 나.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성취목표 요인들 간의 매개효과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가 성취목표전체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beta=.277, p<.001$ )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eta=-.099, p<.05$ ), 성취목표전체가 매개변수로 투입되기 전에는 부정적 학습관여는  $\beta=-.099(p<.05)$ 이었지만, 투입 후에는  $\beta=-.186(p<.001)$ 로 나타났다. 즉, 성취목표전체가 투입된 다음 부정적 학습관여의 절대 값 크기가 증가하였으므로 성취목표전체는 억제효과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가 수행접근목표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beta=.323, p<.001$ )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eta=-.099, p<.05$ )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와 수행접근목표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수행접근목표가 매개변수로 투입되기 전에는 부정적 학습관여는  $\beta=-.099(p<.05)$ 이었지만, 투입 후에는  $\beta=-.207(p<.001)$ 로 나타났다. 즉, 수행접근목표는 억제효과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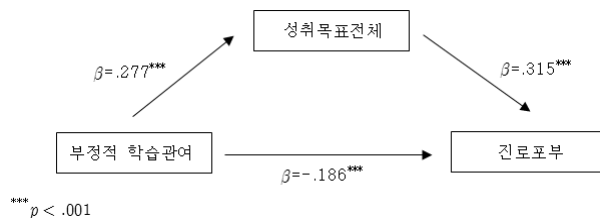
한편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가 수행회피목표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beta=.286, p<.001$ ), 진로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099, p<.05$ ). 부정적 학습관여와 수행회피목표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의  $\beta$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 $\beta=-.073, p>.05$ ), 수행회피목표는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관계를 완전매개(full mediati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진로포부 변량의 1%를 설명하였으나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와 수행회피목표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진로포부 변량의 1.7%를 설명하였다.

〈표 6〉 부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전체 및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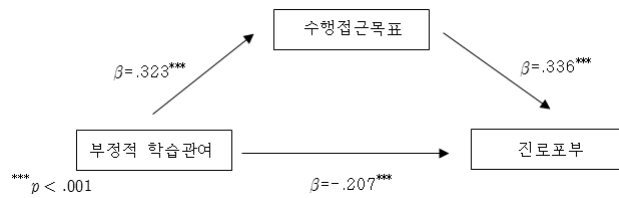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SE	t	R <sup>2</sup>	F
1	성취목표전체	부정적 학습관여	.17	.277	.02	6.91***	.077	47.68***
2	진로포부	부정적 학습관여	-.06	-.099	.03	-2.37*	.010	5.63*
3	진로포부	부정적 학습관여	-.12	-.186	.03	-4.51***	.101	32.36***
		성취목표전체	.32	.315	.04	7.65***		

1	숙달목표	부정적 학습관여	-.05	-.064	.03	-1.53	.004	2.33
2	진로포부	부정적 학습관여	-.06	-.099	.03	-2.37*	.010	5.63*
3	진로포부	부정적 학습관여	-.05	-.072	.02	-1.91	.183	64.00***
		숙달목표	.34	.417	.03	11.01***		
<hr/>								
1	수행접근 목표	부정적 학습관여	.31	.323	.04	8.18***	.104	66.98***
2	진로포부	부정적 학습관여	-.06	-.099	.03	-2.37*	.010	5.63*
3	진로포부	부정적 학습관여	-.13	-.207	.03	-4.98***	.111	35.67***
		수행접근목표	.22	.336	.03	8.07***		
<hr/>								
1	수행회피 목표	부정적 학습관여	.24	.286	.03	7.16***	.082	51.23***
2	진로포부	부정적 학습관여	-.06	-.099	.03	-2.37*	.010	5.63*
3	진로포부	부정적 학습관여	-.05	-.073	.03	-1.68	.017	5.04**
		수행회피목표	-.07	-.091	.03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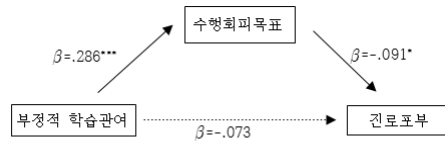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 부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관계에서 성취목표전체의 매개효과



〈그림 5〉 부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관계에서 수행접근목표의 매개효과



\*\*\*  $p < .001$  \* $p < .05$

〈그림 6〉 부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관계에서 수행회피목표의 매개효과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성취목표, 진로포부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고,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상담 및 부모교육장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습관여, 성취목표, 진로포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습관여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학습관여는 성취목표전체와 이의 하위요인인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종속변인인 진로포부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수행회피목표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부모의 학습관여의 하위 요인 중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성취목표전체,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진로포부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성취목표의 하위요인인 숙달목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진로포부와 성취목표전체,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수행회피목표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습관여태도가 성장기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정정애(2008)의 연구, 부모가 효과적으로 관여했을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진로포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박외자(2010)의 연구, 진로포부수준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실질적인 지원과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김경근, 전하람, 2006; 이광자, 2004; 신향숙, 장윤옥, 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 자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의 학습방법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성취목표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취감 발달에 적절한 개입 전략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결과는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청소년 진로관련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하람(2006)의 연구와 부모의 학업정보·조언이 숙달목표에 영향을 미치며(조한익, 2011),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숙달목표를 지향하게 한다는 이상우(2010)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며,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학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학업성취를 도와(이세현, 1994),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열매(2010)와 임은경(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 자녀의 성적이나 석차와 같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며, 스스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녀의 진로포부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하며, 부모의 자녀 학습관여 방식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의 관계를 성취목표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학습관여를 긍정적 학습관여와 부정적 학습관여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성취목표전체,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를 부분매개로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수행회피목표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사이를 매개하지 못하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성취목표전체,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를 향상시키고, 이러한 성취목표전체와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의 향상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진로포부수준을 높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취목표와 진로포부의 관계를 살펴본 최현정(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가 진로포부를 잘 설명한다는 연구결과와 성취목표가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박미연(2011)과 장은혜(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을 지향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힘쓰게 하며, 학습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흥미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진로포부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반면,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성적이나 석차, 과제 확인 시험 준비 등 자녀교육에서의 부모의 기대심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행회피목표를 완전매개로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숙달목표는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목표전체와 수행접근목표는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사이에서 부분매개하면서 억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자녀의 수행회피목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행회피목표 수준의 향상은 진로포부에 부적 영향을 미쳐 자녀의 진로포부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인 학습관여는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무능력 회피에 중점을 두는 수행회피목표의 수준을 향상시켜 낮은 자신감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이며, 이로 인해 진로포부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취목표전체와 수행접근목표는 부정적 학습관여와 진로포부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며, 억제효과를 보였다.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진로포부에 직접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보이지만 성취목표전체나 수행접근목표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진로포부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부정적 학습관여도 단기간의 성취목표전체와 수행접근목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진로포부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정적 학습관여가 단기간의 목표달성에 하나의 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정적 학습관여가 진로포부에 직접적으로는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부정적 학습관여는 성적이나 석차, 과제 확인, 시험 준비 등 자녀교육에서의 부모의 기대심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소질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간섭을 하는 등 압박 수준이 높으면 자녀가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이는 단기간의 성취목표나 수행접근목표는 높일 수 있으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류연자, 1995)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 학습관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녀에 진로포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 자녀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며 실행할 수 있을 때 성취목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진로포부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관여는 숙달목표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이는 진로포부수준 향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자녀의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모의 부정적인 학습관여의 형태인 학습 성과압력은 진로포부의 강력한 변인인 숙달목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하려는 수행접근목표와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무능력 회피에 중점을 두는 수행회피목표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진로포부 발달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부모의 부정적인 학습관여도 자녀의 성취목표전체와 숙달목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진로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 진로포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관여하는 것이 장기적 성취목표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또한 이는 자녀의 진로포부 발달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성취목표에 영향력을 갖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녀의 자율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성취목표의 주요 변인임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개인 내적 요인인 성취목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취목표가 부모의 학습관여와 진로포부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성취목표가 진로포부와 연관됨을 입증하였다. 이는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확장과 함께 이들 세 변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 개입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자녀의 진로포부 수준에 미치는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진로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부모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서울 소재 5개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중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가 지각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방어기제로 인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자녀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맥락변인의 하나인 부모의 학습관여를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표집의 확대와 더불어 다른 변인들과 함께 종합적인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가인영 (2002). 목표지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2005). 청소년 진로지도의 목표와 방법. 상담과 지도, 40(-), 46-64.
- 김연수 (2008).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연 (2011). 부모 지지,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자 (1996). 知覺된 부모의 成就壓力과 아동의 學習疎外 및 對處行動과의 關係. 韓國 敎員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박외자 (2010).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선 (2005).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가정·환경·사교육·학습태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선 (2012). 부모의 교육적관여가 자녀의 학습동기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혜연, 김계현 (2008). 청소년 진로결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9(2), 161-179
- 성소연 (2007). 2X2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원 (2007).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 포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향숙, 장윤옥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89-202.
- 양남미 (2008). 중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상담학연구, 9(2), 537-550.
- 이광자 (2004).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成均館大學校 박사학위논문.
- 이광자 (2005).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

- 업계의 비교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14.
- 이동훈 (2010). 부모 학습관여와 자녀의 성취목표가 학습유형 및 자기조절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 (2000). 수행-접근목표지향성과 학습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욱 (2007). 成就目標指向性 概念의 再分化.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숙, 조한익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임은미 (1998). 學業動機 및 父母行動과 學業成就度의 關係. 서울대학교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와 진로포부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매개효과 연구. 韓國教育論壇, 10(1), 1-23.
- 장은혜 (2009). 희망, 진로장벽, 성취목표가 일반청소년과 시설청소년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하람, 김경근 (2006). 고등학생의 교육포부 결정요인 분석 -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4), 185-206.
- 정원식, 이상노, 이성진 (1986). 現代教育心理學. 螢雪出版社.
- 정정애 (2008).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한익 (2011).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241-259.
- 최수욱 (2002).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정 (2006). 희망과 성취목표가 진로포부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청소년문제토론포럼 (2003). 우리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청소년상담원.
- 홍영란 (1983),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271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3), 260-267.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e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729-735.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218-232.
- Elliot, A. J., McGregor, H. A. & Gable, S. (1999). Achievement goals, study strategies, and exam performance: A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3), 549-563.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1), 1-22.
- Gottfried, A. E., Fleming, J. S. & Gottfried, A. W. (1994). Role of parental motivational practices in children's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1), 104-113.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enrich, C. C. (2001). *Parentinvolvement, motivation, and achievement over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 Jeynes, W. H. (2003). A meta-analysis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minority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 and Urban Society*, 35(2), 202-218.

- Lee, J. S. & Bowen, N. K. (2006). Parent Involvement, Cultural Capital, and the Achievement Gap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3(2), 193-218.
- Maehr, M. L. (1989). Thoughts about Motivation.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Goals and Cognitions*, 3, 299-315.
- Meece, J. L., Blumenfeld, P. C. & Hoyle, R. H. (1988).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4), 514-523.
- Middleton, M. J., & Midgley, C. (1997). Avoiding the demonstration of lack of ability: An underexplored aspect of goal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4), 710.
- Nicholls, J. G., Cheung, P. C., Lauer, J. & Patashnick, M.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academic motivation: Perceived ability, goals, beliefs, and value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63-84.
- O'Brien, K. M., Gray, MP., Tourajdi, PP. & Eigenbrode, SP. (1996). The Operationalization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Symposium conducted at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Skaalvik, E. M. (1997). Self-enhancing and self-defeating ego orientation: Relations with task and avoidance orientation, achievement, self-perceptions, and anxie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1), 71.
- Tolbert, E. L. (1974).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Houghton Mifflin Company
- Trice, A. D. & King, R. (1991). Stability of kindergarten children's career aspirations. *Psychological Reports*, 152, 137-139
- Wang, J. & Staver, J. R. (2001). Examining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of science education and student career aspir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4(5), 312-319.

Young, Richard A. & Friesen, John D. (1992). The Intentions of Parents in Influenc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3), 198-207.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Career aspirat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goal.**

Choi, Jaehyuk · Hong, Hyeyoung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verify mediated effects of achievement go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career aspirat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576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were used for the analysis. For the measuring tool,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chievement goal and career aspiration scale were used. The first, positive learning involvement among the sub-variables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whole achievement goal and its sub-variables which are mastery goal and performance approaching goal and dependent variable which is career aspiration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performance avoiding goal in the relationship with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chievement goal and career aspiration. On the other hand, parental negative learning involvement among the sub-variables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whole achievement goal, performance approaching goal and performance avoiding goal an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career aspiration. The second, parental positive learning involvement mad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aspiration, but didn't make a significant effect on parental negative leaning involvement. The third, parental positive learning involvement mad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aspiration under the partial mediates of the whole achievement goal, mastery goal and performance approaching goal.

Parental negative learning involvement mad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aspiration under the completed mediate of performance avoiding goal. Thus,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as it provides basic data for educational counseling that parental positive and negative learning involvement made effect on career aspiration under the mediate of achievement goal.

Key words :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career aspiration, achievement goal



통합치료연구 제5권 1호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2013, Vol. 5 No. 1, 57-85

##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함혜경\*

지앤선 소아·청소년과의원 부설 놀이언어센터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초등학교 4~6학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와 아동 25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는 정적상관이 있으며, 어머니의 회피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서 사교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와 부적상관이 있다. 둘째,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아동의 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회피애착은 아동의 긍정적 또래관계와 사회적 유능감에서 사교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성인애착인 불안애착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반면, 어머니의 회피애착은 아동의 긍정적 또래관계와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양육행동에서 부적응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아동의 또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성인애착유형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어 : 성인애착, 또래관계, 사회적 유능감

\* 교신저자: 1318ham@hanmail.net

##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유대관계인 애착을 형성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애착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과 기대,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작동모형을 형성한다(Bowlby, 1988; 하유미, 2012 재인용). 이러한 내적작동모형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머니와 또래, 이성으로 애착 대상이 변화되고 확대되며 일생동안 지속되며(이시은, 이재창, 2005), 어렸을 때 형성된 애착유형은 다음세대에 전이된다(전효정, 2003). 따라서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애착의 질과 내적작동모형은 양육자가 얼마나 가용하고 민감한 대상인가에 의해 애착의 질이 영향을 받는다(Bowlby, 1973; 신지옥, 2006 재인용). 본 연구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 양육자와 경험하여 형성된 내적작동모형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을 가정으로 하여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아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애착의 초기 연구는 Main 등(1985)이 성인애착면접을 통해 Ainsworth(1978)의 어린시절 애착유형이 성인애착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초기애착이 성인기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Willin, 2007; 김진숙 역, 2010). 어머니의 애착표상은 내적작동모형에 의해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자녀의 신호를 통합하고 참여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어서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이경숙, 신의진, 김혜연, 1999). 신지옥(200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애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태도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의 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애착은 애착 표상, 신념, 태도, 목표, 관계양식 등에서 개인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로부터 가능한 거리를 두고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정서에 대해 부주의하게 되고, 사회적 지지로부터 스스로 철회하도록 하여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반면, 불안애착은 과잉활성화전략으로 작은 위협도 민감하게 반응한다(Cassidy & Kobak, 1988; 신지옥, 2006 재인용). 또한 Hazan과 Shaver(1981)에 의하면 안정형 유형의 성인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성인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다 애정적이고 따뜻한 것으로 기억하였고, 안정된 성인들은 불안-양가적 성인들이나 회피적 성인들에 비해 자신과 타인을 선의적으로 생각하였다(하유미, 2012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은 어

머니의 불안정성인애착이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 불안정애착은 역기능적 양육태도의 매개가 된다(김재희, 2000; 박인혜, 2012; 정혜승, 2000). 불안 성향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언어적·심리적인 통제와 공격적인 행동이 많고, 회피 성향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높은 무관심을 보였다(김지영, 민하영, 2010). 따라서 어머니의 불안정성인애착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기와 학령전기와 학령후기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김지영, 민하영, 2010)와 어머니의 성인애착에 따른 부정 정서와 양육행동의 관계(곽소현, 김순옥, 2006)등 부분적인 관계만 살펴본 연구들이며,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아동의 관계에서 연구대상자도 학령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아동의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최근에는 고학년 시기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권영애, 2012; 문소정, 2013)와 또래관계(곽은영, 2011; 박효진, 2012)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기는 친밀감의 욕구와 부모의 지지와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고, 또래관계가 중요하게 경험되는 시기이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기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훈련받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내에서 자아개념을 발달(Bukowski & Hoza, 1989; 송영혜, 2012 재인용)시키고, 아동기 사회성과 정서 발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아동들은 여가시간의 상당부분을 부모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되면서, 또래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또래관계는 부모의 애착안정성이 영향을 미치며(이강현, 2008),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또래지위가 높고(박희경, 2009),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유능하며, 문제행동은 적고 또래에게 더 수용적이다(이숙희, 이숙령, 1996).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어머니의 불안정성인애착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아동의 또래관계를 포함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며,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Ford, 1982; 박금옥, 1998 재인용)인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적 발달 뿐 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며, 부적절한 적응을 초래하는 아동문제의 중요 변인이다(Hartup, 1991; 권연희, 2002; 김영희, 2011). 이러한 사회적 유능감은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가 있으며(이하경, 2003),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더 친사회적이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김현주, 2009). Eiden, Teti Corns (1995)는 16~62개월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Crowell과 Feldman (1988)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더 애정적이고 더 지지적이었다(최정미, 1999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불안정한 성인애착 유형의 사람은 대인관계 유능성이 부족하고(신지옥, 2006), 정지나(200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표상을 매개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불안정 성인애착은 역기능적 양육태도로 인해 자녀의 대인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김정란, 2006)는 연구들은 어머니의 불안정성인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대상자를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제한하여 이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초기애착이 아동에게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통해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의 양육행동에서 보이는 특성과 성인애착의 두 요인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성인애착에서 보이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이끌기 위한 지도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성인애착

성인애착이란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체계가 성인으로 이어져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된다는 Bowlby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인에게 접근하고 접촉을 유지하려고 하는 안정적인 경향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기에 또래친구, 청년기에는 동성과 이성친구로 애착관계는 확대되면서(이시은, 이재창, 2005), 생애 초기에 형성된 어머니와의 애착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대상이 점차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기에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1차적으로 형성되는 영아의 애착과는 다르게 이성친구와의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기로 일방적 돌봄보다는 양방향적인 친밀관계를 통해 애착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 결과, 성인기의 관계에서도 연인으로 인해 안정감과 신체적 접촉을 통한 친밀감을 느끼며 연인이 없을 때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나타나 Ainsworth의 영아애착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하유미, 2012 재인용). 이는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이 성인기에도 내적작동모델로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애착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Hazan과 Shaver(1987)에 의하면 회피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려우며 오히려 타인과 가까워지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타인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할까봐 걱정한다. 반면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타인과 지나치게 많이 가까워지기를 원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타인들이 자신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을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장휘숙 1997; 전영식, 2007 재인용).

또한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친밀관계에서 본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두 요인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회피애착의 경우는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로부터 가능한 거리를 두고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정서에 대해 부주의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활성화 전략은 사회적 지지로부터 스스로 철회하도록 만들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며, 불안애착은 과잉활성화전략(hyper-activating strategy; Cassidy& Kobak, 1988)을 발달시켜서 언제, 어디서나 아주 작은 위협도 민감

하게 탐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이러한 유형은 애착 대상의 가용성이 지각되고 애착 안정성이 확인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애착대상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근접성을 유지하기를 요구한다(신지옥, 2006). 불안애착은 과잉활성화 전략인 과민반응으로 사소한 위협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심리적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는 감정에 쉽게 휩싸이거나 불안정한 정서를 보인다. 반면 애착회피는 정서적 단절을 발달시켜 내적인 정서적 경험에 대해 방어하고 부인하려는 성향을 보인다(Fonagy, 2001; Shaver & Mikulincer, 2002; 박인혜, 2012 재인용).

그리고 Shaver & Mikulincer(2003, 2008)의 정서 관련 기억과 경험의 강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불안애착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그것을 강하게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성과 관련되고, 회피애착은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을 억누르는 정서적 억제성과 관련된다(박인혜, 2012 재인용). 또한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성인들은 반영과 공감적인 경청, 자기 노출, 협동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며(Mikulincer, Shaver & Pereg, 1990), 근접성 추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정도에 차이가 있다. 회피애착의 경우에는 근접성 추구나 지지 추구를 덜 하고 거리를 두는 반면, 불안애착의 경우에는 근접성 추구나 지지를 언어적으로 직접 요청하는 대신 울거나 토라지는 등의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요청함으로써 간접적으로라도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 형태를 보인다(Collins & Feeney, 2000; Fraley & Shaver, 1998; 안하얀, 서영석, 2010 재인용). 김광은(2004)의 연구에서도 안정적 성인애착의 경우에는 사회 상황에서 보다 자기 주장적이며 확신이 있지만 불안정애착의 경우에는 안정된 성인애착에 비해 Bowlby의 이론은 영아, 아동기를 중심으로 성인기까지의 애착이론을 확대시켰으며, 내적작동모델의 개념에 의해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이후의 부모로서의 양육행동 사이의 연계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오진아, 2007). 어머니가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이 내적작동모델로 내재화되고, 그것은 어머니와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Stand & Wahler, 1996; 홍정연, 2009 재인용). 특히, 어머니의 애착표상은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자녀의 신호를 통합하고 참여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어서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이경숙, 신의진, 김혜연, 1999). 따라서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표상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아동의 적응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애착인물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시도를 거부한 경우,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거절의 실행 모델을 발전시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모델이 자신의 아이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Bretherton, 1985; 홍정연, 2009재인용).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김재희, 2000; 박인혜, 2012; 정혜승, 2000)에서 어머니의 불안정애착이 역기능적 양육태도의 매개가 되어 아동이 통제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자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Pistole(1999)에 의하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양육자는 양육의 높은 수준을 제공하는데 높은 잠재력이 있지만 불안애착유형을 가진 성인은 과도하게 그들 자신이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의 양육은 비일관적이고 타인에게 민감성이 낮다고 했다(오진아, 2007). 신지옥(200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애착유형에 영향을 미치며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높은 것은 정서조절에 어려움과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으며, 정혜승(2000)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경험은 어머니가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의 경험은 내적작동모델이 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육태도와 개인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불안정한 성인애착은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두 차원으로 조사하여 자녀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 2. 아동의 또래관계

또래(peer)는 사전적 의미로 ‘다른 사람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나이가 달라도 공통의 관심사나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맞춰 가는 관계로 광의적 개념이며(Shaffer, 2008; 송길연, 이지연 역, 2009), 또래관계는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 또래집단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속에서 수용과 인정을 받으려는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상호역동관계(Shaffer, 2000; 김성희, 2011 재인용)이다. 동시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구성원들 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등한 관계이다(송영혜, 2007). 이러한 또래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훈련받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내에서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Bukowski & Hoza, 1989; 송영혜, 2012 재인용). 또한 혼합연령 또래관계에서는 힘이나 권력의 불균형은 있지만 이를 통해 나이 많은 아동은 친사회적 경향과 주장성, 리더십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고(Whiting & Edwards, 1988; 김성희 재인용)

용), 나이 어린 아동은 새로운 기술과 도움 받는 방법,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최경숙, 2007). 따라서 또래관계는 아동기 사회성과 정서 발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령전기에 비해 학령기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관계의 영역이 극적으로 넓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들의 관계는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우정을 만들어 가며 또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또래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 (Buhrmester & Furman, 1987; 문소현, 2010 재인용).

또래관계에 대해 Furman과 Buhrmester(1985)는 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관계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또래관계는 또래관계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우의, 상호친밀, 정서적·사회적지지, 갈등의 해결, 인기,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을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부정적 또래관계는 또래관계를 부정적이며 파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갈등과 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고립, 무시, 또래관계에 대한 불만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관계로 구분하여 어머니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아동에게 또래관계는 중요한 요인이며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이 있다. 개인변인은 개인의 기질, 행동 특성, 인지기술의 영향이다. 그리고 부모변인은 부모들이 아동의 또래사회성을 증진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아동의 또래관계가 부모와의 애착의 질과 애착유형의 기저에 있는 내적작동모델에 연결되어 부모들은 아동의 또래사회성을 증진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다(Shaffer, 2008; 김성희, 2011 재인용). 또한 송영혜(2012)에 의하면 부모의 변인으로 부모의 특성(예: 공격성, 이타성), 부모의 의사소통, 양육행동(예: 민감성, 온화함, 지지적, 접근성), 훈육기법(예: 권력 지향적, 애정적, 철회 및 감소)이 모델링, 강화, 반응의 과정을 통해 또래와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또래집단에 의한 거부, 수용과 연관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Holmes(1995)는 애착유형의 발전을 통해 부모나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애착의 중요한 유형이며,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문제 해결능력,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신감, 인기도와 함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긍정적인 타인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재인용).

어머니와 아동간의 애착도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애착은 영아기의 생존 수단인 동시에 전 생애를 통한 성격 발달의 적응적 기제이다.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 아동기에 자율성을 성취하고, 또래 집단에 속하는 등의 발달적 환경적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재통합하면서 계속된다. 이것은 발달단계상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격과 사회성이 발달되는 시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Bowlby, 1969, 1982; Armsden & Geenberg, 1987; 문소현, 2008).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의 표상은 유아기에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형성하는 관계성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이 아동들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에서 수용과 거부라는 서로 다른 기대를 통합하게 만드는 것으로 추론한다(Bowlby, 1969, 1973, 1980; 이경숙 외, 2000 재인용). Bowlby에 의하면 이러한 기대는 유아의 욕구가 양육자에 의해 충족되었을 때 신뢰감의 형성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학령전기에 비해 학령기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관계의 영역이 극적으로 넓어지며 이 시기에는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우정을 만들어 가면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또래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Gortevant & Cooper, 1985; 이경숙 외, 2000 재인용). 그러나 Kerns와 Klepac, Cole(1996)의 연구에서 학령기와 청소년기에도 아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전히 애착대상을 안전기지로 의존하여 안정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외, 2000). 이는 애착이 학령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초기에 형성한 양육자와의 애착은 내적작동모델의 형태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정옥분, 2006).

국내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착안정성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며(이강현, 2008),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또래지위가 가장 높고(박희경, 2009), 어머니와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애착을 보인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유능하며, 문제행동은 적고 또래에게도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숙희, 이숙령, 1996).

따라서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들 간에 인기가 있고, 리더가 되는 경향이 높으며, 불안전 애착된 아동들보다 또래를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각하며 또래들과 친구관계를 더 많이 갖는다. 안정애착 아동에 비해 불안정애착 아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또래와 혐오적인 관계를 유발하고 사회적 기술 결핍을 보이며 회피 및 몰두된 아동들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적을 형성한다. 회피 유형의 아동들은 몰두 유형의 아동들이 간섭하고 귀찮게 한다고 인식할 수 있고, 몰두 유형 아동들은 회피 유형 아동들을 비지지적이고 거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피와 몰두 아동들은 유사하지 않은 아동 모두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회피와 연관된 아동들은 몰두와 관련된 사례에서 또래와 강한 적대관계를 형성한다(송영혜, 2007).

### 3.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본 연구에서는 Ford(1982)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회적인 목

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Ford, 1982; 박금옥, 1998 재인용)으로 정의하고, 박금옥(1998)이 개발한 사교성, 대인 적응성, 사회 참여도, 주도성, 인기성의 5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교성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아동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더 유능한 행동을 나타내며 친구를 쉽게 사귀는다는 의미이다. 대인적응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 혹은 공격성으로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들은 더 유능하지 못한 아동들보다 공격성을 덜 보이며, 또래들과 생산적이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참여도가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 하고 놀이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주도성은 자신 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서서 놀이를 주도하고 친구들에게 지시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기도는 재미있는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집단의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능력이다(박금옥, 1998).

이러한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동의 현재 생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사회적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연구 결과(O'Malley, 1977; 오성경, 2011)에 의해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는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활동에 만족하고 몰입 하며 행복감을 크게 느낀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인기가 많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학교에서 더 성공하게 된다(Katz & McClellan, 1997; 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5; 김태희, 2013 재인용). 그러나 사회적 유능감이 부족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거나 또래에게 거부되는 등 발달적 어려움을 가지며, 이후의 삶에서 부적응의 위험성(Hartup, 1991; 권연희, 2002)과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며, 성장한 이후에 사회적 관련성, 직업적 성취, 심리적 건강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한다(김영희, 2011).

그러므로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아동의 현재의 환경 적응과 이후의 청년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문제와 관련이 있고(김현주, 2009),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준다는 점에서 아동의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생물학요인, 가족환경 요인, 또래관계 요인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요인을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본다. 왜냐하면 가정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화를 이루는 최초의 장소이자 가정환경이 아동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며, 그 중에서도 가족의 구조와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조 환경이 유아기 발

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를 통해 형성되는 아동의 경험은 이들의 행동은 물론 성격이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후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발달의 성향을 좌우하게 된다(이태영, 2000).

부모의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아동이 처음으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가 부모이며,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기초를 형성해 주고, 애착이론은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준다(이희영, 최태진, 2007; 오성경, 2011). 애착이론을 근거로 한 Elicker, Englund와 Sroufe(1992)의 연구에서도 아동기에 형성된 안정애착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하며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정옥분 외, 2009; 홍연희, 2011 재인용).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불안정애착의 아동보다 낯선 또래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더 많이 보이고(Sroufe, 1983),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들 간에 인기가 있고, 지도자가 되는 경향이 높았다(Water, Wippman, & Sroufe, 1979; 오성경 재인용). 또한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낮게 평가되었고(Cohn, 1990), Lieberman(1997)의 연구에서는 안정된 애착 아동은 놀이 도구를 다른 유아와 나누거나 공유하는 등의 호혜적인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인 쌍방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보여주었다(김현주, 2009 재인용).

국내의 연구에서도 모자간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은 상관이 있으며(최경순, 1992),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고 지도력이 있는 반면 불안정하고 과민한 성향은 낮다(이숙희, 이숙령, 1996)고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가 있고(이하경, 2003),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더 친사회적이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했다(김현주, 2009).

이와 같이 부모-자녀 간의 애착관계는 생후 초기의 애착을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중요한 신념을 형성하고 이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어 결국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 4~6학년을 둔 어머니와 아동 330명이다. 아동을 고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령기는 학습과 또래, 부모 등 여러 변인 요인들을 내재되는 시기이며, 여러 변인을 조사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모의 애착유형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만41세~45세가 47.4%, 만36세~40세는 32.3%, 만46세 이상은 15.5%, 만35세 이하가 4.8% 순서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분포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37.5%, 고등학교 졸업이 35.9%, 전문대 졸업은 25.9%, 초·중학교 졸업 0.8%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 79.7%, 하 11.6%, 상 8.8%로 나왔으며, 직업 분포는 전업주부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및 서비스직이 25.6%, 전문직 및 사무직 22.0%, 생산직 및 기술직 5.6%, 단순노무직 4.0%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유형은 핵가족과 대가족, 한 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으로 나누었다. 핵가족이 81.7%고 대가족은 10.0%, 다양한 가족이 8.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성별 분포는 여자 50.2%(N=126)와 남자 49.8%(N=125)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6학년이 44.2%(N=111) 가장 많았으며, 4학년은 34.7%(N=87), 5학년은 21.1%(N=53)였다. 형제순위는 첫째가 46.5%(N=1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는 36.7%(N=92), 셋째와 외동아이는 8.4%(N=21)로 동일하였다.

#### 2. 측정도구

##### 가. 성인애착

어머니의 성인애착 알아보기 위해 성인애착 측정도구로 김성현(2004)의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ECR-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Brennan, Clark와 Shaver(1998)

가 성인의 애착인 불안과 회피의 두 요인이 애착에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질적으로 구분하고자 ECR을 제작하였고, Fraley, Waller, Bernnan 등(2000)이 개정한 ECR-R을 김성현(2004)이 확인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통해 타당화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anxiety)과 회피(avoidance)의 두 요인을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18~186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유형의 특성이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Fraley 등(2000)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불안은 .93, 회피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Cronbach  $\alpha$ 가 불안은 .90, 회피는 .89로 나타났다.

<표 1> 성인애착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Cronbach's $\alpha$
불안애착	2, 6, 8*, 10, 12, 13, 14, 15, 17, 20, 21, 22, 23*, 24, 25, 26, 31, 36	.90
회피애착	1, 3*, 4, 5*, 7*, 9*, 11, 16, 18*, 19, 27*, 28*, 29*, 30*, 32*, 33*, 34*, 35	.89

주. \*는 역문항

### 나. 아동의 또래관계

아동의 또래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Furman과 Buhrmester(1985)의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의 항목 중 김진경(2002)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를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영(2012)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긍정적 또래관계에서 .93이며, 부정적 또래관계에서 .81이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가 긍정적 또래관계 .94, 부정적 또래관계 .90이다.

〈표 2〉 또래관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Cronbach's $\alpha$
긍정적 또래관계	우의	1, 20	.94
	상호친밀·공감대	8, 13, 27, 35	
	정서적·사회적지지	9, 10, 14, 18, 22, 25, 26, 36	
	갈등의 해결	12	
	인기	5, 32	
	또래관계 만족	3, 30, 39	
부정적 또래관계	갈등과 대립	4, 16, 17, 21, 23, 34	.90
	일방적 주도	2, 7, 19, 24, 29, 31, 40	
	철회·고립	15, 33, 37, 38	
	무시	6, 11	
	또래관계 불만족	28	

#### 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박금옥(1998)이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적 능력 검사를 왕정희(2001)가 초등학생들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의 하위요인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홍연희(2011) 연구의 Cronbach  $\alpha$ 는 하위요인 별로 사교성 .85, 대인적응성 .85, 사회참여도 .91, 주도성 .91, 인기도 .93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사교성 .88, 대인적응성 .88, 사회참여도 .94, 주도성 .93, 인기도 .93 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적 유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Cronbach's $\alpha$
사교성	1,2,3,4,5,6,7,8,9,10	.88
대인적응성	11,12,13,14,15,16,17,18,19,20	.88
사회참여도	21,22,23,24,25,26,27,28,29,30	.94
주도성	31,32,33,34,35,36,37,38,39,40	.93
인기도	41,42,43,44,45,46,47,48,49,50	.93

###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의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와 아동을 3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스노우볼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330부 중 272부가 회수 되었고 불성실응답 21부를 제외하고 2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성인애착,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al 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성인애착의 일반적인 경향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성인애착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표 4〉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성인애착

(N=240, 결측값=11)

변인	구분	N(%)	애착불안		애착회피	
			M	SD	M	SD
나이	만40세 이하	90(37.5%)	2.77	.79	3.71	.72
	만41세~45세	113(47.1%)	2.69	.80	3.59	.69
	만46세 이상	37(15.4%)	2.56	.66	3.71	.9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87(36.2%)	2.65	.87	3.77	.65
	전문대 졸업	63(26.3%)	2.77	.73	3.60	.71
	대학교 졸업이상	90(37.5%)	2.70	.71	3.58	.82
경제 수준	상	26(10.8%)	2.50	.68	3.48	.80
	중	187(77.9%)	2.70	.74	3.66	.71
	하	27(11.3%)	2.90	1.06	3.74	.87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

(N=236, 결측값=15)

변인	구분	N(%)	또래관계		사회적 유능감	
			M	SD	M	SD
나이	만40세 이하	86(36.4%)	2.79	.32	2.97	.52
	만41세~45세	114(48.3%)	2.79	.34	2.89	.49
	만46세 이상	36(15.3%)	2.73	.38	2.88	.5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83(35.2%)	2.82	.37	2.82	.50
	전문대 졸업	65(27.5%)	2.74	.38	2.92	.52
	대학교 졸업이상	88(37.3%)	2.78	.27	3.01	.48
경제 수준	상	24(10.2%)	2.72	.24	3.08	.47
	중	185(78.4%)	2.79	.33	2.92	.49
	하	27(11.4%)	2.79	.46	2.78	.57



## 2.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성인애착 변인에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간의 상관성이 높아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나타나, 성인애착 변인과 아동의 또래관계, 사회적 유능감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al test)을 실시하였다. 편상관관계 분석은 애착회피를 기준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애착불안 수준을 통제하고, 불안애착을 기준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회피애착 수준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 <표 7>와 같다.

<표 6>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

(통제변인: 회피애착) (N=251)

성인 애착	또래관계			사회적 유능감						
	불안 애착 ①	긍정 또래 ②	부정 또래 ③	전체 ④	사교성 ⑤	대인 적응성 ⑥	사회 참여도 ⑦	주도성 ⑧	인기도 ⑨	전체 ⑩
①	1									
②	-.125	1								
③	.219**	-.552***	1							
④	.70	.597***	.339***	1						
⑤	-.047	.568***	-.304***	.349***	1					
⑥	-.104	.664***	-.491***	.276***	.557***	1				
⑦	-.016	.589***	-.394***	.285***	.542***	.353***	1			
⑧	-.128	.662***	-.383***	.378***	.703***	.484***	.611***	1		
⑨	-.075	.708***	-.351***	.461***	.682***	.582***	.529***	.820***	1	
⑩	-.091	.779***	-.466***	.431***	.845***	.711***	.745***	.895***	.892***	1

\*\*  $p < .01$ , \*\*\*  $p < .001$

〈표 7〉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

(통제변인; 불안애착) (N=251)

성인 애착	또래관계			사회적 유능감						
	회피 애착 ①	긍정 또래 ②	부정 또래 ③	전체 ④	사교성 ⑤	대인 적응성 ⑥	사회 참여도 ⑦	주도성 ⑧	인기도 ⑨	전체 ⑩
①	1									
②	-.144	1								
③	.014	-.539***	1							
④	-.148	.620***	.327***	1						
⑤	-.169*	.577***	-.299***	.369***	1					
⑥	-.026	.656***	-.483***	.286***	.552***	1				
⑦	-.232**	.602***	-.392***	.311***	.558***	.350***	1			
⑧	-.152*	.664***	-.365***	.405***	.711***	.475***	.626***	1		
⑨	-.156*	.713***	-.342***	.481***	.689***	.576***	.545***	.824***	1	
⑩	-.182*	.782***	-.453***	.455***	.850***	.701***	.756***	.897***	.894***	1

\*  $p < .05$ , \*\*  $p < .01$ , \*\*\*  $p < .001$ 

회피애착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불안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표 6)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하위요인의 부정적 또래관계( $r = .219, p < .01$ )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하위요인 긍정적 또래관계와 사회적 유능감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불안애착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회피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어머니의 애착회피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r = -.182, p < .05$ )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사회적 참여도가 가장 높은 부적상관( $r = -.232, p < .01$ )을 보였고, 사교성( $r = -.169, p < .05$ ), 인기도( $r = -.156, p < .05$ ), 주도성( $r = -.152, p < .05$ )의 순서로 부적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 3.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N=251)

	또래관계		
	긍정또래	부정또래	전체
	$\beta$	$\beta$	$\beta$
불안애착	-.14**	.24***	.04
회피회피	-.12*	.02	-1.13*
F	9.47***	13.44***	3.11*
R <sup>2</sup>	.042	.059	.02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또래관계 하위요인인 긍정적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은 불안애착( $\beta = -.14$ ,  $p < .01$ )과 회피애착( $\beta = -.12$ ,  $p < .05$ )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또래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 부정적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은 애착불안( $\beta = .24$ ,  $p < .001$ )으로 나타났고, 불안애착 변인은 부정적 또래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N=251)

	사회적 유능감					전체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	
	$\beta$	$\beta$	$\beta$	$\beta$	$\beta$	
불안애착	-.07	-.09	-.07	-.13**	-.09	-.08
회피애착	-.17***	-.03	-.25***	-.16***	-.15**	-.18***
F	9.52***	2.39	18.25***	12.44***	9.07***	10.94***
R <sup>2</sup>	.041	.011	.076	.053	.039	.05

\* $p < .05$ , \*\* $p < .01$ , \*\*\* $p < .001$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성인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적 유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은 회피애착( $\beta=-.18, p<.001$ )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5%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어머니 성인애착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을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교성에 대한 회피애착( $\beta=-.17, p<.001$ )의 설명력은 4%, 사회참여도에 대한 회피애착( $\beta=-.25, p<.001$ ) 설명력 7%, 주도성에 대한 회피애착 ( $\beta=-.16, p<.001$ ) 설명력은 5%, 인기도에 대한 회피애착( $\beta=-.15, p<.001$ ) 설명력 4%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대인적응성은 불안애착( $\beta=-.09, p>.05$ )과 회피애착( $\beta=-.03, p>.05$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4~6학년 아동과 어머니 251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의 경향성을 보고,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회피애착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불안애착은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부정적 또래관계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아동의 긍정적 또래관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애착에서 불안성향이 강할수록,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불안정성인애착은 부정정서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양육 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박인혜(2012), 하유미(2012), 김성희(2011), 문소현(2008)의 연구와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에서 애착

불안이 높은 것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지옥(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관계는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부정적 요인이 증가될 수 있다. 이것은 불안애착이 과잉활성화 전략으로 불안정한 정서를 과도한 의존과 근접성의 성향이 정서적 단절과 방어의 성향의 회피애착보다 아동의 또래관계에 더 밀접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회피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높은 부적상관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애착에서 불안 성향이 강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인 사교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에 어려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유형이 친밀함에 대한 회피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자녀에게 높은 무관심을 보이고(김지영, 민하영, 2010), 활동성, 안정성, 사회성 면에서 낮은 성향(김광은, 2004)으로 어머니의 회피애착유형이 양육태도와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Eiden, Teti Corns, 1995; Crowell, Feldman, 1988; 최정미, 1999)을 주면서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직접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들을 지지한다.

또한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회피애착은 사교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에 영향을 준다는 상반된 결과는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회피와 집착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이정희(2005), 신지옥(2006)의 연구와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르다는 하유미(2012)의 가정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보이는 상반된 타인과의 관계 양식이 아동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 2.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성인애착에서 애착불안은 아동의 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고, 어머니의 회피애착은 아동의 긍정적 또래관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사교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아동의 긍정적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경우 애착유형에 따라 또래관계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민영숙(2007)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어머니의

애착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Putallaz와 Heflin(1990)의 연구와 Shaffer (2008), 정옥분(2006)의 여러 연구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아동의 부정적 또래관계에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영향력이 있지만 회피애착은 영향력이 없음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어머니의 성인애착의 영향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또래 간의 애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오성경(2011)과 김분(2010)를 바탕으로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회피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본 오성경(2011)의 연구결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대상과 같은 대인 관계적 맥락에 있어 불안애착보다 회피애착이 더 문제 됨을 보여준 유영란(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정미(1999)는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는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이 자녀들에게 대인관계의 모델로 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어머니의 회피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대인적응성에는 상관관계와 영향력에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는, 아동의 대인적응성에 어머니 애착이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주(2009)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이정희(2005)의 연구에서 애착 불안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직접 경로를 갖지 않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유미(200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인성적·심리학적 특성과 더불어 결혼 만족도,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애착의 세대 전이에 아동의 기질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연관되어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매개 변인으로 인해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4학년부터 6학년 아동이 또래관계에서의 친밀감을 높게 지각하는 시기(임정하, 정옥분, 1997)라는 점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애착인 부모 변인과 더불어 아동의 기질(김유미, 2007)인 개인적 변인과 다양한 환경적 변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인애착인 애착표상은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아동의 신호를 통합하고 참여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어서 자녀에게 민감하고 일관된 태도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이경숙, 신의진, 김혜연, 1999)를 바탕으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행동에서 부적응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아동의 또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성인애착유형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아동은 부모의 지지와 자율성의 조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가 중요한 학령기로 연구대상자를 확장했다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을 염두 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차원적 측정방법을 보완하여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부모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보고식, 또래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에 따른 아동에 대한 영향력만을 보았으나 한국문화 특성상 어머니의 양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진경(2000). 아동기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운정, 김숙령(2006). 만 5세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또래 간 사회적 행동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교육학회, 10(2), 187-206.
- 곽은영(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 정서능력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애(201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 주도 학습력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소현, 김순옥(2006). 기혼여성의 애착안정성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우울, 불안: 초등학교 어머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5(7), 35-48.
- 김광은(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 분(2010). 초등학교의 부모, 교사, 또래 애착 유형별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상명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성현(2004).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2011). 초등학교 지각하는 과보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유능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2007). 애착의 세대 전이 유형별 관련 요인 비교 분석: 세대 간 전이 되지 않은 애착 유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2000). 지각된 양육태도와 내적작동모델 애착의 상관과 세대 간 전이: 부적응 청소년집단과의 비교.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2006). 중년여성의 불안정애착, 역기능적 태도, 부부갈등, 우울 및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민하영(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삶의 만족도가 애정적-거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 6(1), 137-155.
- 김현주(2009). 학령후기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한



- 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희(2013).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대근(2009). 유아의 사회적 능력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구조분석.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정(2013). 부모의 양육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의 차이.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현(2008).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애착안정성에 따른 사회불안, 또래관계. 사회연구, 16(2), 233-246
- 민영숙(2006). 초등학교 5,6학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공격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옥(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인혜(2012).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불안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불안정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효진(201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성격강점 연구: 인기아와 비인기아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경(2009). 유아-부모 애착이 또래지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구슬(2010).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혜(2007). 또래관계: 진단과 치료. 집문당.
- \_\_\_\_\_ (2012). 또래관계. 시그마프레스.
- 신연희(2010).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증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기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지옥(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안하얀, 서영석(2010).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의 매개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오성경(2011).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유승주(2013). 초등학교 통합학급에서 장애 및 비장애아동간의 또래관계형성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한익(2004). 부모의 애착유형과 아동의 정신병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란(2005).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희(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현(2008). 초등학생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신의진, 김혜연(1999). 아동의 정신병리와 어머니의 성인애착 표상 유형(AAI)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11(1), 131-151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숙희, 이숙령(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 이은정(1995). 부모역할 지지체계와 유아의 인기도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2005). 음악치료가 다운증후군 아동의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5).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하경(2007). 학령후기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1(2), 141-155.
- 이희영, 최태진(200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역할. 한국초등교육학회, 20(1), 23-41.
- 임정하, 정옥분(1997).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18(1), 163-175.
- 장혜주(2011). 아동의 분노원인, 분노표현,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감간의 관계. 경북대

-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1999). 성인기의 애착측정: 면접과 자기보고형 척도들에 관한 개관. 한국인간발달 연구회, 6(2), 147-168.
- 전문주(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조절능력과 또래관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식(2007).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장애아동의 애착 안정성.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효정(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매커니즘: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회, 8(3), 159-174.
- 정미경(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2009). 애착과 발달. 학지사.
- 정지나(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내적표상의 매개 효과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정혜승(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조양래(2010). 빈곤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2011). 아동발달심리학. 교문사.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의 인과 모형 분석: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결혼적응,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유미(2012).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적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연희(2011).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연(2009). 놀이치료 중인 아동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양육 효능감 및 정서표현수용태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avid R. Shaffer(200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 송길연, 이지연 역. 시그

마프레스.

David J. Wallin(2010). Attachment in Psychotherapy.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학지사.

Jeremy holmes(2005). John Bowlby &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역. 학지사.

John Bowlby(2009). Attachment. 김창대 역. 나남

Shaffer. D. R.(200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송길연, 이지연 공역, 시그마프레스

〈Abstract〉

## **The Effect of Mother's Adult Attachment on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Social Competence**

Ham, Hye Kyung

JianSun Children, Youth' s hospital affiliated play·language centers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Influence on which the adult-attachment of mother makes the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and social compet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o collect the resources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 as mothers with children grades 4-6 elementary school and 251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ther's attachment anxiety and negative peer relationships of children showed negative correlation and mother's attachment avoidance was found to be connected with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bility, social involvement, initiative, popularity in the middle of the sub-scales of the child's social competence.

Second, the mother's attachment anxiety affects children's peer relations, mother's attachment avoidance was affecting sociability, social involvement, initiative, popularity in the middle of the sub-factors of the children's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the social competence.

Taken together the above information, It was able to examine that attachment anxiety which mother's adult attachment is affecte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while mother's attachment avoidance influenced children's positive peer relations and social competence. therefore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ir adult attachment styles and not to reach negative parenting behavior because mother's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affect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to use maladaptive parenting strategie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Peer Relationship, Social Competence



〈별첨 1〉

##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 자격은 학회정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6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별첨 3〉

## 논문 작성 요령

###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 4
본문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참고문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 (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 (1줄 띄고 2칸에서 시작, 9.5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9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심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예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예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인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 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 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인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2) 영문: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2)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명. 학위수여대학.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 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6. 표, 그림 및 부록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 (1)  $p$ ,  $F$ ,  $t$ 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 < .001$ ,  $F(1,129) = 2.71$ ,  $t = 4.52$ ).
  -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 값과 표 밑의  $p$ 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 $t$ , \* $p < .05$ )
-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 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 = .003$ )

##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상담심리,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 7 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 제3장 임 원

제12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 : 1명
6.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 1명
7. 학제간 연구위원회 위원장 : 1명
8. 학교교육위원회 위원장 : 1명
9. 임상치료위원회 위원장 : 1명

제13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집행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 제4장 기 구

제17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집행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8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학제간 연구 위원회 위원장, 학교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상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집행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19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 제20조 (상임위원회)

- 1) 학술 및 편집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 2) 국제교류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 3) 학제간 연구 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 모델 연구
- 4) 학교교육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교교육 관련분야 연구
- 5) 임상치료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교이외의 임상현장 관련분야 연구

## 제5장 회 의

### 제2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 제22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3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집행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집행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6장 재 정

### 제25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하고 총

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08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



---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편집위원 :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

**통합치료연구**      제5권 제1호

---

---

2013년 5월 30일 인쇄

2013년 5월 30일 발행

발행처 : 한국통합치료학회

발행인 : 선우 현(한국통합치료학회회장)

(우) 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경상관 4716호

Tel: 02-300-0881 / E-mail: journal@ksit.or.kr

인쇄처 : 동 문 사

---

---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